

로스앤젤스교회 건축 마치고 새누리교회로 새 출발

1,500명 본당, 3층 규모 교육관

선교, 다음 세대, 지역사회에 헌신할 것

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베렌도 교회, 담임 박성근 목사)가 2014년부터 시작된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고 2018년 8월 5일 입당하며 교회 이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로 바꾸었다.

이 교회는 1957년故 김동명 목사와故 안익숙 사모가 개척한 이후, 교계에서는 LA를 대표하는 한인교회, 남침례회(SBC) 교단에서는 한인침례교회의 모교회로 일컬어 받는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김동명 목사 당시인 1977년 첫 건축을 했으며 2대 박성근 목사 부임 후인 1994년에 본당을 증축하고, 교육관과 선교관을 건축했다. 이번이 세 번째 건축이며 교회는 새 건물을 라이프웨이 비전센터라 이름 짓고 복음 전파와 해외 선교, 다음 세대 양육, 지역사회를 섬기는 타전이 되길 기도하고 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이번 건축을 통해 이 교회는 선교 중심적 교회로 대변력을 시작한다. 먼저, 교회의 재정과 사역의 모든 것을 선교

에 건다. 남침례회 산하 선교 기관들은 물론, 교단 소속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선교단체와 동역하며 교회 건물을 선교사 훈련과 양육에 적극 활용한다. 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차세대 사역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번 건축에서도 본당보다 교육관 시설에 규모와 비중을 강화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곳으로 교회를 개방하며 학교, 한인 방송국, 각종 봉사 기관, 젊은이들을 위한 카페에 공간을 대어 할 예정이다.

새 건물은 1,500명 수용이 가능한 본당과 3층 규모 교육관, 450대 차량을 위한 3층 주차장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관에는 250명 수용이 가능한 채플이 있고 주중에는 어린이 학교로도 활용할 수 있는 35개 교실이 있다.

이번 건축에는 총 2,773만 달러가 들었으며 은행 대출은 1,500만 달러를 받았다. 나머지는 성도 개인과 교회 소속 기관들이 헌금해서 마련했다.



남가주 새누리교회가 건축을 마치고 입당했다. 새 건물은 베렌도 길을 사이에 두고 구 교회 건물과 마주보고 있다.

한편, 이 교회가 한인침례교회들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기에 남침례회 해외선교국의 제리 랜킨 명예총재, 데이빗 플랫 총재, 북미선교국의 케빈 예젤 총재, 게이트웨이침례신학교의 제프 오지 총장 등 교단 고위급 인사들과 한국 지구총교회 이동원 원로목사, 남침례신학대학 임용재 전 학장, 길영환 남침례회 전 2부총회장 등이 축사를 보내왔다.

로스앤젤스교회는 이번 건물 완공 및 입당과 동시에 교회 이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로 바꾸기로 했다. 이 이름은 이 교회 개척자인 김동명 목사가 로스앤젤스교회에서 은퇴 후, 북가주와 대전에서 근무, 개척한 교회들의 이름이기도 하고 김 목사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사용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미국, 캐나다의 6개 교회가 이 이름을 공유하며 선교에 동역하기

로 결연한 상태로, 앞으로 이 교회들이 개척하는 지교회들도 같은 이름을 사용할 예정이다.

남가주 새누리교회는 이번 입당과 때를 맞추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안수 및 임직 예배를 5일 오전 10시에 드렸으며 8월 6일부터 9월 15일 '비전의 대장정'이란 주제의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는 중이다.

김준형 기자



이번 청년 연합수련회에 참가한 청년들

“우리는 청년 예배자입니다”

원하트 주최, 작은 교회 청년 연합수련회 열려

작은 교회 청년들을 위한 연합수련회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청년 예배자”라는 주제 아래 레이크뷰 테라스에 있는 YWAM LA 지부 베이스캠프에서 개최됐다. 자체적으로 하계 수련회를 열기 힘든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원하트미니스 트리(대표 피터 박 목사)가 올해 처음 개최한 이 수련회에는 6개 교회

로부터 청년 45명이 참가했으며 9명의 강사와 17명의 스태프들이 봉사했다.

주 강사로 참여한 고창현 목사(토렌스제일장로교회)는 예배와 삶에 대한 깊이 있는 메시지로 청년들에게 도전을 던졌고 한국 R45 찬양팀을 섬기는 찬양사역자 레베카 황 간사는 원하트 밴드와

함께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겼다. 수련회 기간 중 둘째 날에는 다양한 강사들의 특강, 청년들이 어우러지는 활동, 카페와 CCM 콘서트 등 행사가 진행됐고 저녁에는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마지막 날에는 조별 간증과 파송 예배로 수련회를 마무리했다. 조별 간증 시간에는 청년들이 ‘청년 예배자’로서의 결단을 증거하는 다양한 공연을 준비했고 파송 예배에서는 다시금 세상을 향해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나아가기로 다짐했다.

**미용자격증
 미용고급기술**
 김인태
한국국가대표 아시아 챔피언 출신 강사 직강
QCA Beauty College
T.213-232-3837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가을학기 신입생모집

온라인 프로그램
 캠퍼스 프로그램
 OC 상담대학원

- 한국어 강의
- ATS, ABHE 정회원
- 연방정부 재정지원 (유자격자)
- 미국 군종 / 군목 지원자격
- 캠퍼스, 온라인 프로그램

모집마감 2018년 8월 17일 (금)
지원방법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www.wmu.edu/applicationforms)
입학문의 1.213.388.1000 | www.wmu.edu

- > 신학 (준학사,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 > 상담학 (준학사, 학사, 석사)
- > 음악학 (학사, 석사, 박사)
- > 수료증 (유아교육, 가정상담, NGO)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끝났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와 함께 살자”

제13차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 성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사람의 내면과 속 사람 안에 깊은 상처와 쓴뿌리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정서적, 영적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려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내적 치유를 경험하여 오직 예수를 닮는 성품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와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한 나는 죽고 예수와 함

께 살아야 합니다.” LA백송교회(김성식 목사)가 주최한 제13차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한국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를 주강사로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달라스와 인디애나폴리스 등에서도 사람들이 LA를 찾아와 모든 일정을 참석하는 열정을 보였다. 이순희 목사는 컨퍼런스 내내 십자가의 능력과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를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남이 부러워할 만한 학력과 경력을 갖고도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겪는 청년 아들과 함께 온 부부가 “컨퍼런스 동안 사단의 어두운 계략과 정체를 성경적으로 깨닫게 됐다. 아들이 너무 밝아지고 이전의 모습과 활달한 성격을 회복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고 간증했다. 이목사는 23년 전 찬양치유 부흥사로 사역을 시작한 후, 서울신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다. 2013년 12월 인천에 백송교회를 개척해 부흥시키고 대구, 캐나다 LA에 지교회를 개척하고 백송수양관을 설립했다.

한인 재향군인들 김영옥 고속도로 축하 모임



미 재향군인회 한인 829 지부가 자랑스런 미주 한인이자 전쟁영웅인 김영옥 대령의 이름을 딴 고속도로 명명을 축하하는 모임을 지난 3일 개최했다. 김영옥 고속도로는 캘리포니아 주 상하원의 결의로, 부에나팍을 지나는 5번 고속도로 지역이 지정됐으며 지난 3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기공식이 열린 바 있다.

남가주한인중앙상공회의소 정창식 회장 취임



남가주한인중앙상공회의소 제2대 회장에 정창식 회장(캘리포니아 골드 유니버시티 대표)이 취임했다. 지난 2일 저녁 7시 부에나팍 힐리데 이인에서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열려 정재준 제1대 회장이 이임하고 정창식 회장이 취임했다. 이 행사에는 최석호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 해수스 실바 풀러튼 시의원 등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참석해 이취임식을 축하했다.

OC목사회 · 중부교협 광복절 행사

오렌지카운티한인목사회가 8.15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8월 11일(토) 오후 4시 경축찬양제를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 음악회에서는 한국 아무르 연주단이 색소폰 독주, 아리랑합창단, 실비치남성중창단, 은혜한인교회 찬양대, 위트컴합창단, 레위남성중창단 등이 찬양한다. 찬양 순서 중간 중간에 8.15 해방과 이승만, 6.25 동란시 위트컴 장군의 활동 동영상도 상영될 예정이다. 오렌지카운티 목사회 측은 “일본의 극악한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역사적 기쁨을 안겨주신 분은 하나님을 깨달으며 한마음으로 하나됨을 감사드리고 찬양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날마다 불안해져 가는 우리의 조국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에 매진해야 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

가 되는 운동을 새롭게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는 오는 8월 12일(주일) 오후 5시 광복절 기념 연례 콘서트를 세리토스선교교회(방상용 목사)에서 연다. 중부교협은 매년 광복절에 콘서트를 열고 있으며 올해가 제21회를 맞이했다. 콘서트에 앞서 드리는 예배에서는 선우권 목사(한국 세종온누리교회)가 설교할 예정이며 음악회에서는 웨이크시티, 갓스이미지, 포이에마여성합창단, 세리토스선교교회 연합찬양대, 오렌지선교협합창단, 미주청소년예술단, 이정화 박수정 지원의 가야금 첼로 피아노 삼중주도 있다. 이 행사에서는 캘리그래피 작가인 이은희 씨가 공연 및 간증하는 순서도 있다. 콘서트는 무료이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다.



이희숙 목사와 이병희 목사 부부

복음의 나팔수로 쓰임받음 감사

이병희 이희숙 목사 부부가 <복음의 나팔수 성령의 불쏘시개(쿠팤 출판사)>를 공저하고 지난 7월 28일 출판감사예배를 LA 한인타운 가든스윅호텔에서 드렸다. 이 책은 이목사 부부가 은퇴한 후,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동유럽, 북유럽, 남미, 중미,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지의 30여 개국에서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일과 또 그 지역의 생생한 선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세계복음선교회 대표인 이병희 목사는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퇴 후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나팔수와 성령의 불쏘시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서 “이 책을 읽는 분들마다 하나님께

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한몫을 담당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판감사예배는 이병희 목사의 팔순 감사예배 및 이목사 부부 결혼 50주년 감사예배와 겸해 진행됐으며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정영희 목사(드림교회), 김정복 목사(WMC기도학교) 등 교계 주요인사들이 식순을 맡았다. 강준민 목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시112:1-10)”이란 설교에서 “두분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며 아름답게 동역하셨다. 두분은 내려놓음의 삶, 평생 학습하는 삶, 목회자와 선교사를 섬기는 삶을 사셨고 끝마무리를 잘하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셨다. 두분의 아름다운 사역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축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PhD in ICS 인가 및 학생모집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ATS 정회원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북미주 한인 신학교 최초로 TRACS 인가 아래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 in Intercultural Studies)**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선교 영역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게 될 본 과정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본교가 등록된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ats trocs ABHE BPPE CHEA ED.gov
 특전: 선교사장학금 / 목회자장학금 / I-20 발급 / 교수요원 양성 / 탁월한 교수진

박사원 학위과정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PhD in Intercultural Studies)
 선교학 박사 (Doctor of Missiology)
가을학기 1차 서류지원 마감 8월 30일(금)
박사원 연락처 714-365-1123(담당 황의성박사)
 dmiss@gm.edu/phd@gm.edu
 홈페이지 www.gm.edu

GMU 학위과정
 BA 학사
 MAICS 선교문학석사
 MACE 기독교 교육학석사
 MDiv 목회학석사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 | Fax, 714.525.0089
 gmgu@gm.edu | www.gm.edu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한국 교회의 수난 (IV)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일제가 기독교 학교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1915년 3월에 공포된 '개정사립학교규칙'이다. 이 규칙은 조선교육령보다 더욱 엄격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었다. 사립학교는 총독부가 제정한 교과목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과 일정한 교원 자격을 가진 자만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10년 내에 총독부가 규정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의 내용 중 학교의 설비를 확충하고 선생들을 보완하여 향상시키라는 것은 학교를 위해 타당하고 좋은 내용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는 건학 목적에 위배되는 치명적인 항목인 '성경교육을 정규시간에서 빼고, 종교의식 즉 예배를 철폐'하라는 규정은 학교의 존립과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였다. 기독교 교육을 기독교 학교에서 없애 버리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시설을 보완할 기간을 10년으로 정해 시간적 여유는 있었으나, 문제는 성경교육과 예배 철폐를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다는 데 그들의 흑심이 있었다. 결국 기독교 세력을 최대한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다. 일제는 1915년 8월 16일에 공포된 총독령 제83호에서 선교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새로 교회를 설립할 때, 교회에 유급 직원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회의 증가를 사실상 봉쇄하려 했다. 실제로 평북의 주에서는 교회 설립허가를 끝내 얻지 못해 교회가 해산되는 예도 있었다.

부의 손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교육은 절대적으로 국민적이어야 한다. 세계적인 정신과 통하는 종교와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과 종교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종교는 세계적이지만, 교육은 국가적이라는 단견(短見)이다. 교육은 자국에만 충실한 사람을 만들 뿐 아니라 세계 만민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기독교적 원리를 몰각했다. 기독교 교육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애국자와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자를 만들어 내는 길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 리 없었다. 저들의 관심은 기독교 교육이 결국 독립의식을 고취시켜 항일적 인사를 양산한다 판단했음에 틀림없다.

이 사립학교 규칙은 기독교 학교에 커다란 시련을 안겨 주었는데, 특히 장로교계 학교에 심했다. 그 원인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였다. 관립학교 학생은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사 밑에서 교육을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는 취직이 보장되었다. 따라서 관립학교보다 열악한 교육환경과 졸업 후의 진로가 보장되지 않은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어 연일 스트라이크와 휴교 사태가 연발했다. 더욱 어려웠던 점은 잡종 중등학교 졸업생은 전문학교 본과에 지원할 수 없고, 별과에만 지원할 수 있게 한 법 때문이었다. 결국 기독교계 학교 학생들의 전문학교 지원까지 막아, 학생들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켰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선교부들간의 이견(異見)이었다. 만일 모든 선교부와 학교가 혼연일체로 총독부와 대치했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감리교회와 장로교

회 선교부의 의견이 갈려, 결과적으로 장로교회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감리교회 선교사들은 폐교되는 것보다는 총독부 규칙에 따라 교육을 계속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정규과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는 없어도, 개인적 접촉과 작은 기도단을 만들어 지도하면 학교를 폐쇄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화, 배화, 평양의 광성, 정의, 개성의 송도, 호수돈, 원산의 루씨(樓氏) 학교가 총독부 인가 신청을 제출하고 학교명도 '고등보통학교' 또는 '여자고보'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장로교회의 생각은 달랐다. 기독교 학교의 존재 의미는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학생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심어 주고 궁극적으로 기독교인을 만들려는 것인데, 만일 성경교육도, 예배도 드리지 못한다면 학교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고 판단하고 끝까지 인가 신청을 거부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사(神社)는 종교가 아니고 국민의례이므로 모든 학교 행사에서 학생을 신사에 참배시키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더 이상 고려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되자 총독부는 장로교 학교를 모두 잡종(雜種)학교로 분류해 버렸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신, 정신, 평양의 송실, 송의, 대구의 계성, 신명, 광주 송일, 수피아, 전주의 신흥, 기전, 선천의 신성, 보성, 재령의 명신, 목포의 영흥, 정명, 강계의 영실, 마산의 의신 등은 전부 잡종학교로 존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같은 장로교 계통인 캐나다, 호주는 영국계여서 함흥의 영성, 동래의 일신 등은 고보가 되었다.

이렇게 일제의 억압을 받은 기독교 학교는 차츰 그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1911년 조선교육령, 1915년의 개정 사립학교령으로 1910년 2,080교가 1915년에는 1,154교로, 다시 1923년에는 649교로 감소하였다. 집요한 일제의 기독교 학교에 대한 탄압도 1919년 3·1 운동이 끝난 후 소위 문화정치라는 표방 아래 기독교 학교에 다시 성경교육과 예배를 허용함으로써,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온 장로교 학교들의 승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4년간 성경 66권 통독 새벽기도회 미주평안교회 임승진 목사 강해 마쳐



임승진 목사

하면서 모든 새벽예배를 빠지지 않고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임승진 목사는 예수님께서 새벽미명에 항상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목회의 사역을 가운데 새벽기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성도들을 목양한다. 아내 임혜옥 사모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피아노 반주로 새벽예배를 섬겼다.

올해로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는 미주평안교회는 지난 8월 4일(토) 감격스러운 새벽기도의 시간을 맞이했다. 제4대 담임목회자인 임승진 목사 부임 후 2014년 1월부터 창세기 1장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지난 4년간 성경 66권을 통독하고 강해를 마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주평안교회의 새벽기도는 특별하다. 현대인들의 분주한 삶 속에서 매일 새벽기도에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담임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눈다.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고 소홀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의 유희 앞에서, 미주평안교회 성도들은 규칙적인 경건의 연습을 지속하며 나아간다.

특히 담임목회자인 임승진 목사는 모든 새벽예배를 직접 인도한다. 바쁜 이민교회의 목회사역을 감당

미주평안교회는 이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한다. 금주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성경통독을 향한 영적 여정이다. 담임목사 부부의 한결같은 영적인 분을 토대로 미주평안교회의 새벽기도는 그 은혜의 불을 이어간다.



공연을 마친 후, 에스더 박 단장이 나와서 인사하고 있다.

시즈 오브 워십 <Right On Time>

어린이 선교 뮤지컬팀 시즈 오브 워십(SOW, Seeds Of Worship)이 지난 8월 5일 오후 7시 라미라다 퍼포밍아트센터(1490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에서 <Right On Time>이란 주제의 뮤지컬을 무대에 올렸다.

이 뮤지컬은 청소년들의 성장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조명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뮤지컬은 공연장이 꽉 찰 정도로 큰 성황을 이루었다.

만남의교회 무료 결혼식 신청자 모집

샌퍼난도밸리에 있는 만남의교회(이정현 목사)가 무료 결혼식 행사를 열며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식 자체, 신부 웨딩드레스 및 화장, 웨딩 촬영, 피로연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이들을 위한 결혼예비학교도 2주간 개최한다. 오는 8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교회 웹사이트 www.churchmannam.com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교회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818-882-9191

결혼식을 준비 중인 예비 부부 1쌍과 이미 결혼은 했지만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기혼 부부 3-5쌍을 초청해 결혼식을 열어준다. 교회에서 결혼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일 해세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발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철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ete Hills Hyundai

철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푸르기 탐구생활 이상호PD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아이비 유학 T.(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미디어벽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75>

김넷 대회와 인터콥 선교캠프

지난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시카고 워튼칼리지에서 김넷(KIMNET) 대회와 선교캠프가 연이어 열렸다. 김넷은 미주에서 사역하는 30여 한인 선교단체들의 연합 모임이다. 김넷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제1회 대회를 했던 워튼칼리지에서 100여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모여 기념 대회를 한 것이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마침 김넷 대회가 폐회하는 날부터 인터콥선교회가 주관하는 선교캠프가 4일간 열렸다. 김넷에 참여하였던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선교캠프의 첫 예배를 함께 드렸다. 약 1,800명의 전 세대, 그리고 다민족들이 어우러진 캠프였다. 첫 예배부터 마치 하늘문이 열린 것 같은 큰 은혜와 열정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이어졌다.

첫날 말씀은 10/40창 선교운동 창안자인 루이스 부시 목사가 선포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직경 5천 마일에 속한 이슬람권 및 중동이 그 창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인터콥선교회가 그 창에 선교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격려했다. 이어 미국에서 선교적 교회로 성장한 뉴저지 크라이스트 교회의 담임 데이빗 아이랜드 목사가 사도행전적 선교 시대를 주창하며 선교캠프가 미국 부흥의 불꽃이 되기를 기원했다.

둘째날 오전 예배의 말씀은 노봉린 박사(하와이 AGST-Pacific 총장)가 선포했다. 미국의 선교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며 차세대 제2의 선교 부흥의 주인공은 미주 한인 그리스도인들이며, 최전방 전문인 선교를 담당하는 인터콥선교회가 그 앞에서 달려가기를 바라는 권면을 해 주었다.

강의 사이마다 SM(선교지)에서 1년 이상 헌신한 대학생 선교사들의 선교 간증보고는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둘째날 오후 시간은 선택 강의로 은사 사역 개발의 일환으로 관심있는 분야를 택해서 강의를 듣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다. 강의 주제가 다양하여 성령의 은사, 교

육선교, 의료선교, 비즈니스선교, SM 선교운동, 어린이 세대 선교, MK 선교운동, 전도와 개척선교 등 다양한 주제로 참여자들은 선택한 강의를 듣고 각자의 선교의 사명을 고취시켰다. 저녁시간은 인터콥 본부장인 최바울 선교사의 강의였는데 가히 이슬람권 선교의 전문가다운 통찰력으로 세계 선교의 영적 비전을 제시한 강의였다. 한 마디로 탁월했다.

또한 셋째날 저녁 시간에 이집트 P 선교사는 중동의 선교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모인 모두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지폈다. 인터콥 본부의 K 선교사는 '선교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많은 이들이 사명감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한 선교단체에 이렇게 훌륭하고 출중한 리더들이 있을까 할 정도의 강력한 말씀선포였다.

선교캠프의 대미는 셋째날 오후에 있는 페스티벌이었다. 선교캠프는 같은 시간에 키즈 캠프와 유스 캠프가 함께 열렸다. 100여 명의 어린이와 1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그들과 대학생, 청년들의 창의적 발표가 페스티벌 무대를 채웠다. 1800여 명 성도들의 손에는 이미 열방의 작은 국가들이 시간 내내 함차게 펼쳐졌다.

마지막 시간은 장기선교사 가정들을 파송하는 시간이었다. 모두가 일어선다. 그들을 향하여 두 손을 뻗어 합심하여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 감사했다. 감격적이었다. 그들을 파송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는 "다음은 내 차례다" 하는 결의가 느껴졌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행복을 훈련시키는 핀란드의 행복 교육

차이를 건강하게 하는 껌 자일리톨, 세계 핸드폰의 40%를 점유했던 노키아, 그리고 사우나로 유명한 핀란드는 한국과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외침과 식민 지배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또 두 나라는 얼마 전부터 교육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핀란드는 교육을 통한 국력신장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와 한국 양국은 교육강국이 되었고, 200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매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와 한국의 교육에는 공통점만큼이나 상이점도 아주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한국 교육은 결과 중심의 경쟁 교육이라면 핀란드 교육은 과정 중심의 협력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행복한 나라 핀란드의 행복 교육의 중요한 특징들을 정리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첫째로 핀란드는 교육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초등학교부터 박사 과정까지 수업료가 없습니다. 모든 교육비용을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교육비가 전혀 필요없는 완전 무상 교육입니다. 핀란드는 자녀 출산의 부담이 없습니다. 국가가 교육과 양육을 전부 책임집니다. 핀란드에는 사립교육 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학교 기관이 공립기관이며 핀란드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대부분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둘째로 핀란드 교육은 교사 중심의 교육입니다. 핀란드는 우수한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러나 일단 채용되면 교사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인정합니다. 교사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아주 철

저하고 까다롭지만 일단 교사가 되면 사회적, 경제적 위상과 대우가 대단합니다. 핀란드 사회에서 교사직은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당연히 보수도 좋습니다. 교사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합니다. 교사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교사들을 교육 시스템의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소신껏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직업만족도가 높고 행복한 교사들이 일하는 교육 현장은 행복합니다.

셋째로 핀란드 교육은 학생들의 행복을 지향합니다. 행복한 교육은 핀란드 교육의 목표이자 결과입니다. 여러 조사들의 결과에 의하면 핀란드의 학생들은 교육을 받으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고 미래의 행복을 갈망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행복을 미루며 미래의 행복을 위해 공부합니다. 반면 핀란드 학생들은 현재의 행복을 누리며 미래의 행복을 준비합니다. 행복을 핀란드 학생들의 학창시절은 행복한 세월이며 행복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핀란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넷째로 핀란드의 교육은 남과의 경쟁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한국의 교육은 '타인과의 경쟁'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에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 교육은 자신의 어제와 비교하게 하고 자신의 어제보다 더 발전된 자신을 가꾸게 합니다. 핀란드의 교육철학을 나타내는 말 중에 "진정한 승자는 경쟁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는 표준화된 학생 평가제도가 없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경쟁은 부작용이 큽니다. 극소수의 우등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트레스, 불행감 그리고 좌절감을 겪습니다.

한국 교육이 교육 효과를 강조한 나머지 학습 효율성을 높였지만 그만큼 학생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현재도 불행하지만 행복을 훈련하지 못해서 미래에도 불행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핀란드 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며 행복을 경험하는 행복 교육입니다. 교육 과정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행복 교육입니다.

삶의 보람과 의미 그리고 즐거움의 합체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많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이 무의미합니다. 꿈과 목표를 이룬 후에 행복을 누리지 못해서 방황하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늘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 훈련의 중요성을 핀란드 교육이 가르쳐 줍니다.

늦깎이 시인의 시집 출판회 열려

8월 4일 오후 6시 이동녕 시인의 처녀 시집 "땅위에 사는 연어" 출판감사 모임이 있었다.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 정지윤 회장의 축사와 동문인협 김문희 이사의 시평이 있었고 이동녕 시인의 칠순 잔치를 겸하여 감사예배를 드렸다.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는 설교에서 "저자의 시성과 시어들을 부러워한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문희 이사는 이동녕 시인의 감성과 시의 세계를 높이 평가하며 그가 열어가려는 새로운 시의 세계를 기대한다고 했다.

평생 엔지니어로 살아온 시인은 늦깎이 시인이다. 얼마 전부터 크리스천 문인협에서 동인활동을 통해 습작을 시작했고, 문인협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현재는 크리스천 문학



시집 출판 감사 모임 및 칠순잔치를 마친 후 기념 촬영

회 이사로 활동하며 왕성한 시작(詩作)을 하고 있다. 이동녕 시인은 인생, 고향, 신앙, 만남, 사랑 등 다양한 주제를 평이한 시어로 풀어내 쉽게

읽을 수 있는 시를 쓴다. 이민자의 삶, 신앙인의 삶을 정감한 언어로 표현한 시인의 시들은 많은 독자들로 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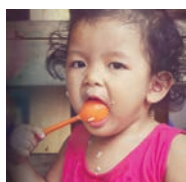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믿음이 적은 자들이

마태복음 8:23~2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마8: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좇았더니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25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시니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마8:14-15)”

베드로는 어부로서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나선 이후로 그 집은 가장이 없이 그 아내가 자녀들을 돌보며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형편에 그 장모가 함께 살며 베드로의 빈자리를 메워 딸의 집에서 그 가정을 도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열병에 걸려 앓아눕게 되면서 그 소문은 온 동네에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고 그 앓아누운 장모의 손을 만지심으로 나음을 입은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경합니다. 앓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우물에 물을 길러 오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봄으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면서 그 동네의 많은 병자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예수님을 그 동네로 모셔들이는 계기가 되었고 그 장모의 열병이 나은 것으로 인해 온 동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고 그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재료거리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마8:17)” 했습니다. 구약에서 1600여 년을 두고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

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집과 그 동네가 다 알아보도록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8:19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좇겠다고 말합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좇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니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자신을 따르겠다는 말 속에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믿음으로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기대를 걸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임을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중심이 간절하고 수고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애쓰다 보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심으로 마음껏 섬기고 남을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 물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가 에워쌌음을 보시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허둥대며 불안에 떨며 죽을까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기술, 노력을 다해 배를 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기술과 경험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에게서 가능성이 라는 기대가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더 이상 스스로 지탱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無知) 때문에 괜한 걱정을 하고 불안해 하며 헛고생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

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깊게 알면 알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6:3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향해 원망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믿음이 없던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모세는 태연하게 지팡이를 들고 언덕에 올라가 많은 백성들이 다 들도록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3-14)”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은 하다가 어떤 환란과 풍파가 일어나더라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을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 지시고 유익한 결과로 이끌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십니다.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도 순종하

는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스승인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풍랑을 통해 제자들부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풍랑이 일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풍랑을 통하여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왔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향하신 기대, 사랑을 체험시켜 주시기 위한 환란이고 풍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절대로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즉시로 해결이 서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속적 기대와 혈기로 인하여 당하는 환란과 풍파는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 복종하며 살겠으니 용서해 달라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음으로 해결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9:10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주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Since 1999

www.e-nca.org

LA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가을학기 학생모집
K-9th



무료 앱 다운로드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90점 기록 (전미주 평균 1,060점)
- 지난 19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 (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하루 3분 거꾸리 운동으로 허리통증과 혈액순환을 한번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허리통증 해결

Z-UP 전동 거꾸리

- 손가락 하나만으로 작동하는 전자동 전동식
- 한국 인기 운동기구 - 노약자분들의 필수품
- 척추, 혈액순환, 근육이완, 청소년 성장촉진에 좋습니다!

전동 거꾸리로 평생 허리통증에서 해방!

1. 활발한 운동으로 디스크가 눌리는 현상이 발생할 때, 반복적인 거꾸리 운동으로 척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통증을 유발하던 디스크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간격이 넓어진 척추공간에 **통증이 줄고 회복력을** 자연히 높여줍니다.
 3. 거꾸로 매달리는 것은 요가에서 물구나무 서기와 똑같은 운동입니다. 운동하는 습관은 나를 지킵니다. 장수로 가는 길목입니다. 1일 1번 물구나무 서기하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머리를 심장보다 낮은 위치로 이동, 정맥 팽창을 방지**해줍니다.
- 특히,
 1. 평소 허리에 손을 짚고 일어나거나 걸으시거나 2. 목직한 허리 느낌이 있거나 허리가 빠르하신 분
 3. 산악훈련, 등산, 심한 육체노동 후, 전신 혈액순환, 전신 근육 피로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용 가능한 전동 거꾸리 효능 (계속 반복 운동을 했을 경우)

1. 머리의 혈행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전신이 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3. 척추의 곡만이 정렬될 수 있습니다.
4. 추간판 디스크의 간극이 이완, 확장되고, 신경눌림이 없어서, 허리가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5. 전신 근육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근 및 어깨 회전 근계골 등)
6. 거꾸리 운동 후, 머리가 개운해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7.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도 충분한 운동효과를 유발합니다.
8.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의 발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장판 자극)

손쉽게 하는 전동 거꾸리로 물구나무서기, 어떤 효과가 있을까?

★ 척추기능향상

평소 직립 보행으로 하체에 혈액이 모이게 되는데, 물구나무를 서다보면 혈액이 머리에도 공급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이를 척추가 지탱해 주기 때문에, 척추기능이 향상되고,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키가 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비염, 코막힘 해소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코막힘이나 비염 치료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2717 Olympic Blvd., L.A., CA 90010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천종산삼 옆)
 Tel. 213-382-7100, 213-700-8382



과거 결혼 75주년 기념 감사예배에서 인사하는 정용철 목사(우)와 정필규 사모(좌)

故 정용철 목사 천국환송예배

찬송가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작곡해

故 정용철 목사의 천국환송예배가 지난 28일 평안교회(담임 강성림 목사)에서 있었다. 이날 예배에는 워싱턴 주 지역 목회자들을 비롯해 많은 조문객이 참석해 고인이 남긴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그의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 된 삶'을 회고했다. 고인은 찬송가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등을 작곡했으며 워싱턴 지역 교협 회장, 미국장로교(PCUSA) 한인교회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천국환송예배에서는 최병걸 목사(웨드넬웨이 제일장로교회)가 기도, 강성림 목사가 "넋넋히 들어감(베드로후서 1:10-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지선목 목사(벤크루버장로교회)가 조사 낭독, 김병규 목사(주님의영광교회)가 축도했다.

고인은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 1936년 정필규 사모와 결혼, 슬하에 장남 정재두 목사, 차남 정재훈 장로, 삼남 정재홍 목사, 사남 정재혁 집사, 장녀 정은경 집사, 차녀 정은주 집사 등 6명의 자녀를 뒀다.

고인은 강원룡 목사, 문익환 목사, 문동환 목사 등과 함께 간도 용정중학교와 한국신학대학교에서 수학했던 한국 기독교계 원로로 한국 교회와 미주 한인 이민교

회 역사의 산 증인이었다. 1948년 조선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1960년 한국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1967년부터 1968년까지 일본 동경신학대학교 청산학원에서 실천신학을 수학했다. 1978년부터 1979년까지는 미국 프린스턴신학교에서 목회학을 연구했다. 1978년에는 데이비스 엘킨스 대학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한국에서 1950년부터 1954년까지 흥해 제일장로교회, 1954년부터 1970년까지 서울 신암장로교회에서 목회했으며, 1970년부터 1983년까지는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목회했다. 1983년에 은퇴 후에도 2개 교회를 개척, 시무하고 7개 교회에서 인터림 목사로 시무하는 등 활발한 사역을 이어갔다.

정용철 목사는 기독교계 대선배로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늘 '성실'을 당부했다. 그는 "제가 실제로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이라,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쭙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겸손의 목회자였으며, 또한 "과장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실제일주의로 목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는 신실한 목자였다.

풀원 기자



참가자들이 전해준 전도용지를 한 가족들이 다 같이 보고 있다.

맨하탄 중심에서 뉴욕성시화총력전도

국제도시선교회(ICM, 대표 김호성 목사)가 매년 미국인과 미국 내 다민족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개최한 미국재부흥운동이 올해 6회째를 맞아 지난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이 기간 중 맨하탄에 집결해 전도지를 나눠주는 뉴욕성시화총력전도가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 한국의 어린이들까지 동참한 가운데 많은 복음의 결실을 맺었다.

올해 뉴욕성시화총력전도는 오전 10시 맨하탄 레멘트(Remnant)교회에서 모여 부흥집회 및 전도훈련을 가진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현장전도를 진행하는 식이었다. 이날 맨하탄 전도를 위해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 로체스터, 워싱턴DC, 보스턴 등의 미주 지역 도시와 캐나다, 한국 등에서도 참여했다. 올해는 특별히 한국에서 수영로교회 태권도선교팀이 파견, 맨하탄 선교에 힘을 보탰다.

부흥집회에서는 각지에서 참석한 목회자들의 강력한 메시지들이 전해졌다. 장석진 목사(뉴욕성결교회 원로), 장성만 목사(UMC 원로) 등의 교계 원로를 비롯 김재열 목사(뉴욕센트럴교회), 흥원기 목사(PCA 총회장), 이성일 목사(내리감리교회), 강덕식 목사(보스턴조이풀교회), 마크 박사(뉴욕센트럴교회), 안현일 목사(베다니감리교회), 정민철 목사(뉴하트선교회), 이기웅 목사(뉴욕성결교회), 윤희문 목사(워싱턴라벨교회), 오현석 목사(수영로교회, CCC 태권도 선교사), 박인갑 목사(뉴저지새방주교회) 등 미주와 한국의 목회자들은 메시지를 통해 복음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ICM과 미국재부흥운동 대표인 김호성 목사는 "130년 전에 생명을 바쳐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교회에 진 복음의 빛을 갖고 미국과 한국에 부흥이 일어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재부흥운동의 목표"라면서 "이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시지 순서가 끝난 후 목회자들 전원은 이번 맨하탄 전도를 위해 각지에서 참석한 650여 명의 참가자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

곧 참가자들은 타임스퀘어로 이동해 뉴욕성시화총력전도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거리 전도에 앞서 수영로교회 어린이 태권도선교단이 타임스퀘어에서 태권도 시범, 격파, 태권도 워십댄스 등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후 ICM 미주 가족 태권도 사범팀들의 태권도 시범 및 격파가 있는 후 거리찬양을 부르고 다 같이 전도지를 나눴다. 퍼포먼스 현장에 있던 미국인과 관광객 중 일부는 아는 찬양이 나오자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조를 짜서 타임스퀘어 일대에서 거리 전도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한국에서 어린이들이 대거 참석해 단체로 태권도복을 입고 두 손으로 전도지를 건네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맨하탄 현지의 미국인들과 관광객들은 어린이들이 두 손으로 인사하며 건네는 전도지를 미소를 지으며 더 흔쾌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밀중학교 / 토요일 -17와 비몬트 크니
주중새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T. (213) 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2세를 버릴지며, 이단기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예배 오전 10:50 **새니킴** 담임목사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금부 오후 7:30
토요일침례 오전 8:00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리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강진웅**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향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김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박현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한여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전야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세각족 성경공부** 오후 1:00 **정병노** 담임목사
대예배 2부 오전 11:00 **종교개혁**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382-7240 Email: lasehil202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건물 옆에 위치)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시 **박은중** 담임목사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에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리산예배 (분당) (산예배) 오전 11:0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공,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박효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라티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요/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정학 지역, 십자가 지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중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회
 불러세(Call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8:00
한글학교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순환** 담임목사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장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사랑과 화평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저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로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11:00 **김준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영어**, **유저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한여청년부** **오후** 2:15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조용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김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찬양예배 오전 10:00-오후 1:00

뮤리아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ieta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보기도회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찬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1부예배(토)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토)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파송기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u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경대방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라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30 이혼상담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530-4040/F. (310)530-8400/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도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9:3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별리채목 Valley Chapel MP채목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588 Alte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el: (818)383-5887 Tel: (223)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한기연 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기연

한기총 준비 안 되면 한교총과 먼저 통합 추진하기로 임원회 열고 원칙 결정... 13일 통추위원들 논의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이 3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 있는 한기연 회의실에서 제7-5차 임원회를 열고 3개 연합기관 통합의 원칙을 결정했다.

한기연에 따르면 이날 임원회는 지난 7월 20일 임시총회에서 법인설립을 결의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한기연에 통합을 위한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오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날 임원들은 △3개 연합기관 통합을 추진하되 △동시 통합이 어려울 경우 한교총과 먼저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교총과의 통합 추진은 한기연 법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미남 분담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오는 13일 예정된 3개 연합기관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조찬모임에서 논의될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에게 위임했다.

임원회는 결의에 앞서 통추위 보고를 받았다. 위원장 권태진 목사는 지난 7월 27일 군포제일교회에서 한기연, 한교총, 한기총 3개 기관 통추위원들이 모여 논의된 사항을 보고하면서 한기총의 경우 "아직 통합을 위한 내부 준비가 미흡하다"며 "한기총이 추후에 준비가 갖춰지는 대로 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선 한교총 대표들과 통합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또한 통추위는 한교총과의 통합을 위한 실무 대화를 한기연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에게 위임했음을 밝혔다. 이날 최귀수 사무총장은 최근 한교총 통추위원들과 몇 차례 만나 양 기관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음을 보고하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후원의 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서영 대표회장님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해외 750만 동포와 세계복음화 향해” 세기총 후원의 밤 행사 개최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세기총) 후원의 밤 행사가 27일 오후 서울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세기총 후원이사장인 전기현 장로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환영 및 축하, 3부 만찬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에선 김동근 장로(상임회장)가 기도하고, 박위근 목사(초대 대표회장)가 설교했다. 축도는 김요셉 목사(증경 대표회장)가 했다.

‘천국의 삶을 산 사람들’(행 2:43-4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박위근 목사는, 서로의 소유를 내어놓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언급한 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이런 삶을 산다면, 그곳은 이미 천국”이라며 “세기총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750만 디아스포라를 향해 이 운동을 전개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기총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광수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2부는 정서영 목사(대표회장)의 인사, 전기현 장로(후원이사장)의 환영사, 고시영 목사는 “세기총이 앞으로 국내 모든 교단들과 잘 연대하고, 젊은이들을 비롯해 숨어 있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오래도록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장신대 ‘무지개 사건’ 학생들 징계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가 최근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무지개 사건’의 학생들에게 26일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징계위원회는 이날 학생 5명 중, 1명에게 정학 6개월, 3명에게 근신·사회봉사, 나머지 1명에게 엄중경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징계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또 일부는 소위 ‘숨방망이’ 징계라고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지난 5월 채플 중 일부 학생들이 동성애 옹호 퍼포먼스를 벌인 소위 ‘무지개 사건’이 논란이 되자 관련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까지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교단 산하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이 문제와 관련, 대처가 미흡한 임성빈 총장을 징계하라는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교단 관련 인사들의 우려가 계속되자 결국 징계를 결정하고 발표했다. 김진영 기자

종교자유를 위한 TF 설치한다

“종교자유 위협하는 위험한 움직임에 맞서야”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법무부 내에 ‘종교자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세션스 법무장관은 “종교자유 태스크포스는 법무부가 앞서 발표한 종교자유에 관한 지침서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자유지침서는 시민뿐 아니라 영리법인, 종교 단체, 학교에서도 설립 목적에 따라 특정한 종교 행위를 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션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종교자유회담(Religious Liberty Summit)에서 “태스크포스는 법무부가 종교자유지침서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을 제거하기 위한 ‘위험한 움직임’(a dangerous movement) 때문에 이를 조직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이 ‘위험한 움직임’

은 우리의 위대한 종교자유 전통에 도전하고 이를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맞서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2017년 10월에 발표한 종교자유에 관한 지침서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는 물론 연방기관에 종사하는 이들도 업무를 수행할 때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제시 파누치노(Jesse Panucino)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정책 담당인 베스 윌리엄스(Beth Williams) 차관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움직임’이 개신교 제빵사, 플로리스트 등을 위협해 왔다.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 종교자유를 위해 일하는 태스크포스를 위해 기도하자”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강혜진 기자



영국 캔터베리대성당 ©canterbury-cathedral.org

영국 5천개 교회들 그린에너지 사용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등 예배당에서 100%

영국성공회에 소속된 15개 성당을 포함해 5,000개 넘는 영국 교회가 그린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포스트가 크리스천에이드(Christian Aid)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성공회를 포함해 가톨릭, 침례교, 감리교, 웨이커, 구세군 등 다양한 교단이 예배당에서 100% 그린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영국성공회에서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니콜라스 홀탐(Nicholas Holtam) 사제는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교회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켜보는 일은 매우 환상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클린에너지 사용을 후원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지구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

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동참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전 캔터베리대주교이자 크리스천에이드 의장인 로완 윌리엄스 박사는 “영국성공회가 ‘파리기후협정’의 목표에 따라, 화석연료업체들의 주식을 매각하는 데 동의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취했다. 교회는 전 세계 네트워크의 일부이며, 전 세계에 가뭄, 홍수, 심각한 기후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곤경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 역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위해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혜진 기자

매년 600만 명 무슬림 기독교 개종

파키스탄 교회개척자, 책 출간해 관련 사연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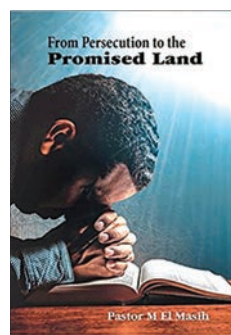
파키스탄에서 수 백개의 교회를 세운 목회자가 “거룩한 치유와 영적인 꿈이 많은 무슬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다”고 간증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M. 엘 마시 목사는 ‘박해받는 이들의 울음 교회’(Cry of the Persecuted Church)를 개척한 이후 현재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지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최근 출간된 자신의 책 ‘From Persecution to the Promised Land’에서 “일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나 진리를 추구하던 어느 순간 이슬람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후 우울증과 불안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성도들과 목회자의 도움을 받고 마침내 1993년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심각한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고, 무슬림 위주의 사회에서 이등 시민으로 취급을 받았다. 파키스탄에서 이같은 상황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마시 목사는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 가운데 다수는 이슬람주의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 그들은 서양의 많은 이들에게 ‘이슬람이 위협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짓된 확신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귀, 마술, 사탄숭배 세력으로부터 오



책 표지

는 영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시는 “무슬림이 높은 출산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복음이 계속 무슬림 세계에 전파되어 매년 6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무슬림들이 개종을 결심하는 이유가 꼭 성경을 읽거나 전도자의 권유 때문만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꿈과 비전을 통해 그들을 초대하기도 한다. 이는 전 세계의 박해 지역에서 주님을 만난 많은 이들의 간증이다.

마시 목사는 자신의 책을 통해 사역의 성장과 교회 개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차례 기적과 같은 치유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O.C./앨버틴 지역 김철민 장로 결혼교회, 사모교회, 부부교회, 아버지교회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받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한국어) 오전 10:00 민영목 담임목사(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정오 12:0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0:00 Youth Orchestra(주일) 오후 12: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유정호 담임목사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기 담임목사 대학원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씩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김한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C대학원부 오후 2:00 앨버틴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앨버틴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하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온평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금요찬양 기도회 오후 7:3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 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남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박훈 담임목사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basket@hanmail.net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람학훈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새 시대를 일으키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678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f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보고싶다! 공군 전우여!

**1961~1970년도에
수원, 10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한 사병들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해당 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연락처 : 차수철(병144기)
(213)200-653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6~7살 1~2명 모집) 초보가능



Email : mrjacob601@hotmail.com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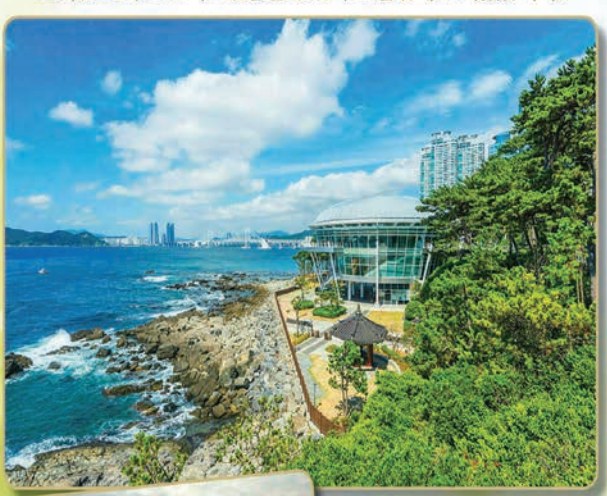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가을 맞이 고국일주 여행







그리운 고국으로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모시겠습니다.



일 정

- 고국방문 7박8일
한국일정 (10/6-10/13)
\$1,140 + 항공료
(특급호텔, 식사, 가이드팁 포함)
- 옴션 베트남 3박5일
베트남일정 (10/2-10/6)
고국+ \$450

www.KorusTour.com
문의: 213) 503-6196 계사카
213) 842-7079 JAY LIM

통찰력을 키우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인생의 문제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며, 누구를 보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창문 너머로 진흙땅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온 후에 정신 병동으로 갔다고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며 시를 썼습니다. 밤에 별과 달을 보며 시를 썼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온 후에 시집을 들고 출판사로 갔다고 합니다. 누군가 만들어 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감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분들이 원망과 남을 탓하며 살아가는 동안, 수도원에 사는 수사들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갇혀 있는 것은 일반입니다. 하지만 수도원에 사는 수사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중보기도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시각에 있으며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진 것만큼 봅니다. 또한 아는 것만큼 봅니다. 경험하는 것만큼 봅니다. 미국에 와서 Taurus라는 중고차를 산 적이 있습니다. Taurus라는 차를 사기 전까지는 그런 차가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 날, 중고차를 사서 운전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Taurus라는 차가 수없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Taurus라는 차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어린 아이 용품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신문, 그리고 잡지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의

기저귀 광고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 기저귀 광고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관심이 생긴 까닭입니다.

누구나 보지만 잘 본다는 것, 깊이 본다는 것, 그리고 전체를 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이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통찰력이란 남이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찰(洞察)이란 단어는 “뚫리부터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찰력이란 깊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원을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관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깊이 보고,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 것만큼만 본다면 사업을 잘하기 어렵습니다. 보는 힘이 깊어질 때 통찰력이 깊어집니다.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숲을 보기 위해서는 숲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숲을 보면서 한 발자국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 실패란 당장의 이익에 너

무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어보는 중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면 당장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초연하게 사업에 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보면 전체가 보입니다. 또한 시대적인 흐름을 읽게 됩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읽을 때 변화를 감지하게 되고,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변화해야 할 때는 변화해야 살아남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10분 후와 10년 후를 동시에 보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멀리 보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 갑니다.

통찰력이 중요한 까닭은 통찰력을 통해 소통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찰이란 사물이나 현상만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찰이란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때 공감력(共感力)이 탁월해집니다. 공감할 때 소통이 가능해지고, 소통이 잘 될 때 유쾌해집니다. “아픈 것은 통(通)하지 않기 때문이요, 아프지 않은 것은 통(通)하기 때문이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잘해야 하고, 경청을 잘해야 합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은 함께 동행하는 친구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열림을 의미합니다. 열림이 있어야 보게 됩니다. 또한 열림이 있어야 듣게 됩니다.

가장 탁월한 통찰은 성령님의 빛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눈이 열려 탁월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통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뉘시니이까



써니김 목사
LA세티교회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고 사람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가도록 넘겨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큰 빛에 둘러싸였는데 이 빛과 함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었던 예수가 3일만에 부활하였다던 소리를 들었는데 그 예수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순간 혼돈의 세계로 빠져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함을 인식하였을 것이라 묵상해 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자 첫 질문을 합니다.

“주여 뉘시니이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 묻습니다. 나의 구원자되신 예수님, 나의 생명되신 예수님. 내가 사는 삶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큰 빛으로 인하여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바

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듣지 못하였고 바울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택한 그릇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에게 보여 주신 큰 빛의 영광과 소리를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여주시며 들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주님의 세계는 밝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바울의 첫 질문을 보면, “주여 뉘시니이까”라고 묻는 물음 속에 바

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 속에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더 알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누구냐고 물었던 바울의 질문을 떠올리며 베드로의 대답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진실된 고백이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나의 문제 앞에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꿈과 비전 앞에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절망 앞에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트로피



박성근 목사
남가주 새누리교회

미국의 대표적 가정 사역자요, 저술가이며, 또 방송가이기도 한 제임스 님슨(James Dodson)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대학을 다닐 때 그의 마음에 품었던 가장 소중한 소원이 테니스 대회에 나가 우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3학년 때 그 꿈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 해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그가 타온 우승 트로피는 학교 캐비닛에 진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는지, 그 캐비닛 앞을 지날 때 마다 가슴이 뚫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의 집으로 소포 하나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열어보니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 했던 우승 트로피였습니다. 그 밑에 조그마한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학교가 확장 공사를 하는 관계로 둘 곳이 없어

피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 쓰레기통으로 가게 되어 있다(Given enough time, all our trophies will be trashed by someone else).”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했던 모든 세속적 영광의 트로피는 언젠가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영원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잠깐 빛나다 사라질 영광을 위해 살아선 아니 됩니다. 영원이라는 안목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조명하고, 영원히 남을 꿈을 향해 달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길 열매가 값지고 보람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통해 이룩한 트로피가 진짜입니다. 하늘나라 캐비닛에 영원토록 진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자살’을 ‘살자’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 가운데 겪을 수 있는 38가지 위기에 대처할 ‘처방전’

로마서 강해 펴낸 오묘한 목사

“자살하려는 사람의 심정을 다 헤아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삶이 힘들어 지쳐 있거나 자신의 과오로 인해 자신의 죄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죽음으로 끝을 내 버리겠다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을 마음으로 이해하거나 생각으로만 동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의 심각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ECD 자살률 1위국인 우리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전업 작가인 저자 이상민 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책을 쓴 이유 중에는 자신의 경험도 포함돼 있다. “저 자신도 몇 번이나 자살하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여 죽었다고 상상해 보면 너무도 끔찍한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죽고 싶은 힘든 상황 속에서 허를 깨물어가며 다시 살아보려고 다짐하여 자신과의 싸움 속에 살고 있는 요즘 제 하루는, 24시간을 꼬박 사투에 일해오 시간의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자살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수천, 수억만 배 이상 더 무서운 지옥이라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절대적으로 심각한 사실이 있다”고 전제한다. 책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다소 담겨 있다는 말이다.

책에서는 ‘내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살아가는 것에 낙이 없을 때’, ‘내가 왜 사는지 모를 때’ 같은 추상적 고민부터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들보다 내 삶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전 재산을 잃는 사기를 당했을 때’, ‘직장에서 대인관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음속으로 꿈꾸던 여행을 너무 하고 싶을 때’, ‘내가 그저 일하는 기계, 돈 버는 기계로만 느껴질 때’ 같은 구체적 고민까지,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38가지 경우에 대한 일종의 ‘처방전’을 담고 있다.

꼭 자살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어, 취업을 앞두고거나 사회생활 경



자살하고 싶은 이에게 띄우는 마지막 편지!
이상민 | 가나북스 | 318쪽

험이 부족한 20-30대가 한 번쯤 읽어볼 만 하다.

저자의 처방전을 살펴보자면, ‘갑자기 병원에서부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대해 저자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14년을 더 살았던 아버지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말한다.

“지금 내 삶이 (앞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아)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서 치열하게 보내야 한다. 하루를 누구보다도 뜨겁고 치열하게 보내야 한다. ... 다 털어놓고, 다 쏟아 붓고 가야 한다.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 그래야 의미를 만들 수 있다. 그래야 죽을 때도 원통함이 없게 된다.”

구체적인 위기의 해결책을 보았으니, 추상적인 문제의 답도 만나볼 때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없다고 느껴질 때’에 대해서는 “노력해도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 성공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규칙은 각 업계마다 다르다”며 “좌절은 금물이다. 지금 내 삶에 희망이 없어 죽고 싶다면, 최선을 다하면 된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길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하고 노력하는 데 달려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곤경에 처해 있더라도, 이 세상에 절망으로 쓰러질 일은 그 무엇도 없다. 그것이 무엇이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극복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시면 된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정답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다. “마음을 단단히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다시금 여러분의 투지를 불타오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 모두를 뒤흔들어야 심장이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죽지 말고 꼭 살아야겠다는 분들이 읽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38가지 ‘자살 위기’에 답한 후 이렇게 말한다. “자살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사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불어 ‘조금만 더 참자’고 파이팅을 불어넣는다. “세상과 인생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몸이 피곤하고요? 피곤해도 하면 되잖아요. 잠고 하면 되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인생이 낙원으로 변하는데, 왜 죽으려 하시나요? 조금만 더 참으면 인생은 살아볼 만하게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첨부했다. “성경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는 일상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살면 됩니다. 살되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하기를 뜨겁게 응원해 봅니다. 늘 힘을 내세요! 모든 것은 가능하니까요!”

이 세상은 살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자살’을 바꿔 생각하면 ‘살자’가 되는 것이다. 저자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단순한 진리를 전하고 있다.

저자는 11년 동안 전업 작가로 활동하며 20여 권의 책을 집필했다. 대표적으로 <순정의처럼 생각하고 승리하라>, <나이 서른에 책 3,000권을 읽어봤더니>, <책쓰기의 정석>,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 <독서 자본>, <365 매일 읽는 한 줄 고전> 등이며 다수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는 유로저널을 통해 대한민국 30대를 대표하는 청년작가로 소개됐고, 30세 전 책 3천권을 읽고 다큐멘터리 3천편을 섭렵한 ‘청년 독서가’, ‘지식 크리에이터’이다. 현재 5천 권의 책과 4천 편의 다큐멘터를 접한 ‘실천하는 지식인’으로서 이상민책쓰기 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CTS 기독교TV와 책쓰기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대웅 기자



오묘한 목자의 로마서 강해 오묘한 지식과감성 | 460쪽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다.”

대학생경영기독교회(UBF)에서 오랜 기간 사역하고 있는 오묘한 목자가 <오묘한 목자의 로마서 강해>를 펴냈다. 오 목사는 2002년 간절히 기도하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확신을 얻고 성경 66권 전체 강해를 결심했다고 한다.

로마서 16장 전체를 한 절씩 꼼꼼히 설명하면서 두툼한 분량이 나왔고, 목자만 19쪽에 달한다. 저자는 보통 로마서 하면 떠오르는 ‘칭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 마디로 이 책은 집밥과 같다. 그렇게 맛있는 않지만, 질리지 않고 몸을 건강하게 한다”며 “이처럼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자극적인 재미는 없겠지만, 자신이 변화되고 건강해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요즘 기독교 전도에서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하지만, 사실 중요한 문제는 교회가 복음의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이라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밝혔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하

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 1:17)’는 구절에서 그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라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공의를 이루신다. 현실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은혜로 주신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도 중간도 끝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며 “행위는 믿음의 결과일 뿐으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롬 8:28)’에서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의지가 있다. 인간의 의지가 있고, 사단의 의지가 있다. 자연의 의지, 역사의 의지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이런 의지보다 더 크시다”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목사는 “로마서 1-8장에서는 개인 구원을 다루고, 그 주제 성구는 1장 17절 말씀이었다. 로마서 9-11장에서는 만민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요절은 11장 36절”이라며 “우리는 시작과 중간과 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을 때, 어떤 사단의 역사나 실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을 그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충남대 국문학과 출신으로 천안 지역에서 논술 교사로도 유명세를 떨쳤던 저자는 “국문학도로서, 논술 선생으로서, 목회자로서 로마서를 읽었다”며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사도 바울이 멈추는 데서 멈추면서 로마서를 읽었다. 로마서를 강해하는데 신학적 이론이나 세상의 이론을 끌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숨겨진 20야드를 찾아드립니다

골프클럽의 성능 70%는 샤프트에 달려 있습니다

휘텍골프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만의 名品 클럽을 가져 보세요!



세상에 오직 하나... 당신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클럽

영/업/시/간
화요일~토요일
10:00 am ~ 8:00 pm

미국 스펙의 R(Regular)는 아시안 스펙 S(Stiff)정도로 강하고 무겁습니다. 제조사마다 같은 강도도 스펙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샤프트의 강도를 알려면 Shaft Frequency C.P.M (1분 동안에 샤프트가 진동하는 수)을 측정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무게, 강도, 길이 등 미국 스펙 골프채로 좋은 경기력 향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자신의 스펙을 찾으세요.

Private Lesson

단기간 집중 골프스윙 완성
스크린 통한 구질 분석, 자신의 스윙을 모니터로 보며 교정



휘텍골프 피팅 스튜디오



213.327.4080 / 213.315.5179
3050 W. 7th St #101 Los Angeles, CA 90005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323)732-4669

VALERO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 암센터내 고려대 안암병원내 입점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성	중성				알칼리성
3.5	6.0	7.0	8.5	9.0	9.5
					셀라케어 10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데에 사용된 장소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84)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 정원 무덤

예루살렘 옛 성의 북쪽 중간에 있는 세계 문을 나서면 팔레스타인의 수도라 부르는 동예루살렘 중심지 살라딘 거리가 나오고 상인들로 북적거리는 곳을 지나면 성문에서 불과 250m 정도 되는 거리에 정원 무덤이라는 곳이 나온다.

이 정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이 이루어진 골고다 언덕의 해골처럼 생긴 곳에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부활하신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영국의 찰스 고든 장군이 1893년에 발굴하여 현재는 영국 사립 자선단체인 정원무덤협회(The Garden Tomb Association)에서 관리하고 있다. 입장료는 받지 않고 기부금을 받는다. 정원의 동남쪽에 있는 돌계단에서 바라보면 아랍 버스 정류장이 보이고 왼쪽으로 해골처럼 보이는 절벽이 보인다. 오른쪽으로는 예루살렘 옛 성의 성벽이 보이고 성벽 밑으로 솔로몬의 체석장 입구가 얼핏 보이기도 한다. 이 체석장은 오래된 솔로몬 시대 성전을 세우기 위한 돌을 채취하는 체석장이었다 하는데 로마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돌로 치는 사형집

행을 할 때 사용되는 장소였다고 한다. 해골로 보이는 절벽 위는 로마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한다. 십자가형은 일반적으로 경고의 의미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행하여지는데, 이곳은 세계와 여리고로 내려가는 갈래 길에 중요한 도로선상에 있었다. 이곳은 아랍어로 골고다, 라틴어로 갈보리라 부르는 곳으로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보통 순례객들은 지금 예루살렘 옛 성 안에 있는 4세기 콘스탄틴 황제의 모후 헬레나에 의해 건립된 무덤교회(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를 찾아간다. 사실 예수님과 관련된 장소가 2개 이상 있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성경적 진리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죄 값을 치루시고 죽음과 만났으며 그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곳이나 저곳이나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때론 중요할 때도 있다. 그래서 성지도 순례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 어디로 가면 더 좋을까? 전통적으로 한다면 옛 성 안에 무덤교회로 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으로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무덤교회보다는 한적하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이곳 정원 무덤이 더 좋다. 그래서 필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정원 무덤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한다. 그리고 소리친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정원 무덤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 해골이 보이는 곳까지 가서 주변 지형과 골고다 언덕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안으로 들어오면 큰 빗물 저수장을 본다. 900,000 리터 이상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이 저장고는 십자군 시대의 저수 탱크로 본다. 이전의 저수 탱크가 1세기에도



서병길 목사
전 GMS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
풀러신학교
선교목회학 박사

있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저수탱크 옆으로 1924년에 발굴된 포도즙 짜는 곳을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곳이 커다란 포도원이었을 것이라 보고 아리마대 요셉이 이 정원의 소유자였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곳을 지나 북서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고대 무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라는 장소이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영어로 된 문구가 무덤을 가리는 문에 붙어 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두 개의 돌로 된 방이 있는데 첫 번째 방은 무덤을 찾아와서 조문하는 곳이고 두 번째 방이 무덤이다. 보통 세 마포로 싸여진 시신은 이곳 돌 위에 안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돌문을 닫으면 무덤이 완성된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이곳은 많은 순례객들로 붐비고 여러 단체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예배가 열리기도 한다. 물론 이 때가 아니라도 순례객들이 항상 찾아오지만 보통의 순례객의 일정에는 정원 무덤이 들어가기 어렵다. 시간적으로 어

렵고 교통편이 복잡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올드 시티 안에 있는 무덤교회로 가기 때문이다. 무덤을 두 군데나 방문하여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기도 하다. 아무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잘 찾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사실 성지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콥트교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이 마땅히 찾아갈 성경적 기념장소가 없다. 그래서 일부 개신교인들은 성 안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교회를 방문하는 대신 이곳을 방문하기도 한다. 이곳은 위치적으로 팔레스타인 동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사실 복잡하기도 하고 약간의 위험한 상황도 생각하여야 한다. 그래도 난 이곳이 좋다. 할 수 있으면 이곳을 찾아 죽음과 부활을 생각해 보고 싶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죽음과 부활은 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계속)



정원 무덤에 있는 돌



정원 무덤의 간판



시신이 안장되었던 방 내부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여름학기 신입생, 편입생 모집

참, (진리의길) 알, (학문의 길) 삶, (십자가의 길)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 (한국과 미주) 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6월 21일 개강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곳
우리의 굳어버린마음을 여는 곳
꿈을 잃은 마음을돌이킬 수있는 곳
그리하여 충만한삶을 회복하는 곳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당신을 초대합니다

새신자를 위한 주일예배에 초대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세요

주일 예배 | 오후 2시

육신적 질병과 영적 치유함을 통하여
강건함을 나눠 드립니다

수요 치유 예배 | 오후 7시 30분

담임목사 : 엘리야 김 목사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Tel.213-272-6031

“북한에 교회 1천 곳 세우고 싶어요”

‘성경통독 100독 학교’ 탈북민 리더 박사라 씨

한국 열방빛선교회(대표 최광선 교사)는 ‘G. M. I 탈북민 성경통독 100독 학교’를 통해 탈북 청년들의 신앙 훈련과 심령의 변화는 물론, 성공적인 남한 정착까지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기 졸업생이 배출됐고, 현재 5기생들이 함께하고 있다. 5기 성경통독반 탈북민 학생들은 경기 포천 한 기도원에서 1년간 합숙하며 성경통독과 기도, 공동체 훈련을 하고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성경통독과 말씀암송, 기도가 계속된다. 성경으로 삶이 바뀌고 있는 이들을 만나, ‘통독’과 자신의 삶에 대해 들었다.

◆악몽 시달리다 성경통독으로 단잠

현재 5기 탈북민들의 리더로서 함께하고 있는 박사라 씨(46)는 지난 1998년 탈북 후 2004년 국내에 입국했다. 탈북 후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한국에 들어온 뒤 다시 떨어졌다. 사회에서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한국 사람들과 소통도 잘 안 되다 보니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 같았다고 한다.

북한에선 ‘기독교인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교육을 철저히 받은 터였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어머니의 고향까지 북진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환영했는데, 북한군이 재점령했을 때 그들을 모두 총살시켜 버렸다고 한다. 선교사도 나쁜 사람이라고 세뇌됐다가, 중국에서 선교사를 처음 만났을 때 아주 거부감을 느꼈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쪽이 편했어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악몽에 시달렸어요. 저승사자같이 생긴 존재가 검붉

은 물로 끌고 가면서 ‘저들한테 붙잡히면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루이틀이 아니라 계속 악몽을 꾸다 보니 온갖 노력을 다 해 봤지만, 악몽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녀가 했던 ‘노력’은 물론 무속적인 것이었다. 무당이 하라는 대로 소금도 뿌려보고, 칼을 갖고 잠들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별안간,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들었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이 떠올라 교회로 나왔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자신도 모르게 머리가 떨거지고 무릎이 꿇어지는 경험을 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를 깨닫고 회개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영적으로 민감한 편이어서 귀신들의 존재가 느껴지니 무서워졌다.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채워져야 다시는 귀신이 안 들어온다’는 말에 하던 일까지 다 정리하고 매달렸지만, 말씀을 들으면 의문이 적잖게 생기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권사가 최광목사의 저서 <내래, 죽어도 좋습네다>를 건네 주었다.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탈북민들을 알게 됐고, ‘북한 사람들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광 목사를 직접 만날 생각은 못했는데, 자신이 전도한 한 여성이 최 목사를 너무 만나보고 싶어해 함께 그를 찾았다. 성경통독반 소식을 알게 됐다.

“다른 건 하나도 묻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고만 여쭙는데, 그렇다고 하셨어요(웃음). 성경을 마음껏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묻지 않고 통독반에 참여하게 됐어요.”

모두가 그러하듯, 처음 성경통독반 생활은 쉽지 않았다. 열방빛선교

회의 ‘G. M. I 탈북민 성경통독 100독 학교’는 하루 8시간 성경을 읽고 3시간씩 기도하며 1년간 성경 1,000 구절을 암송하기 때문이다.

“처음엔 학생들끼리 관계성에서 힘들기도 했어요. 저랑 비슷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웃음). 몇십 년씩 따로 살던 이들이 함께 살게 되니 정말 많이 부딪쳤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은혜를 주셨고, 그날 읽은 성경말씀 한 구절로 깨닫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산을 내려갔지만, 결국 다시 올라왔다. 올라올 때마다 울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제게 눈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동안 북한에서 교육받은 것들,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던 나름의 관점이 있었는데, 조금씩 변화되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의 잘못된 바라보다 긍정적인 면도 함께 보게 됐고, 나와 다르면 배척하며 살아왔다는 것도 깨닫게 하셨지요.”

예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사귄 필요 없이 편하게 혼자 살자’는 생각이었지만, 조금씩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면서 함께 기도하게 됐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생각해요. 아무리 구제불능 같아 보여도, 말씀 안에서 변화될 수 있어요. 저도 ‘한 고집’ 했는데 완전히 변화되는 걸 체험하면서(웃음), 이제 누구를 봐도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변할테니까요.”

◆변화의 증거? 자신이 가장 잘 알아

박 씨는 한때 우상을 섬겼던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마다 깨닫는 바가 있다고 한다. “북한은 사람을 신



탈북민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가운데, 박사라 씨가 앞에서 이들을 인도하고 있다.

으로 받들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견고한 진인지요. 그 우상숭배의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느껴요. 그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변화의 증거에 대해서는 “3개월쯤 지나면 자신이 안다”고 답했다. “몇 달간은 다들 ‘이걸 왜 해야 하나’ 생각하지요(웃음). 탈북민들은 대부분 얼굴이 경직돼 있는데, 이것이 조금씩 풀립니다. 북한에선 ‘사랑’이라는 게 워낙 없었고 체험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요.”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도 본인은 변화됐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다 알고 있다고 한다. “3개월쯤 지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변화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둠과의 싸움이 있으니까요.”

최근 은혜받은 말씀을 문자, 이사가 48장 10-12절을 줄줄 외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여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 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박사라 씨의 비전은 ‘북한에 교회 1천 곳을 세우는 것’이다. “목회자로 살겠다는 건 아직 아니고요(웃음). 처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래서 사업도 더 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업장도 건강도 가져가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너무 무섭고 떨려서 앞으로 뭘 할진 모르겠지만, 허락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싶어요.”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은 탈북민들이, 다시 ‘구속’이 있는 성경통독반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뭘까. “스케줄이 하루종일 계속되니 힘들긴 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변화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있지요. 이곳을 찾는 탈북민들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확신이 맞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이 1년만 투자해서 성경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

이대웅 기자

“천국에서 예멘인들 만나게 될 것”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고 나쁜 사람들의 입국을 막는 것은 정부가 할 역할입니다. 그러나 교회인 우리는 지상대명령을 완수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가야 합니다.”

중동전문 사역단체 언차티드(Uncharted) 회장 톰 도일 목사는 한국사회의 이슈로 등장한 예멘 난민신청자의 대거 입국 문제와 찬반 여론에 대해 “한국교회가 민족주의적 우려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무슬림 사역 분야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인 그는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11년간 사역하며 예멘

무슬림들과도 함께 한 경험이 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사역 파트너이 기도 한 톰 도일 목사는 “미국인으로서 난민 문제가 얼마나 위협적일 수 있는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시리아,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이 긴장하며 염려했습니다. ‘저 사람들 테러리스트 아니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 정부가 이런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을까?’ ‘그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지는 않을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톰 도일 목사는 예멘 난민신청자의 입국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예멘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수십 년 동안 복음의 문이 열리길 기도했던 나라입니다. 폐쇄적인 나라죠. 성경 반입이 일절 금지된 나라이고, 가정교회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00여 명의 예멘인을 남한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톰 도일 목사는 이슬람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유럽 무슬림 난민들이 복음을 받게 된 데에는 교회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고향을 떠나 유럽으로 온 그들을 염려해 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뿐이었다고 무슬림 난민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



중동전문기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톰 도일 목사(좌측)와 한국 순교자의 소리 대표 현숙 폴리 박사(우측) 시켰습니다.”

톰 도일 목사는 “여러분의 기도와 그들을 만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자 하는 노력 덕분에 머지않아 예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 표는 “하나님은 어디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일하실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00여 명의 예멘인 영혼을 한국교회에 맡기신 것은 축복”이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CE),
선교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남은 시간 속에서 웨딩 사역으로 주님 섬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13)- 조준희 집사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질주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이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절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될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어다”라고 했다. 인생의 정점을 경험한 지혜자 솔로몬의 충고다.

기자는 죽음의 언덕을 가까이서 바라보았던 조준희 집사를 만났다. 암으로 인해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며 치료 과정을 확인하는 상황이다. 병원에서 오는 길이었다. 비교적 좋아지고 있다는 의사의 소식을 듣고 상기던 얼굴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조 집사가 토해내는 삶의 고백들은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노래요 찬양이었다. 죽음의 언덕을 바라본 사람의 여유와 관조가 있었다.

성당에서 시작한 신앙생활

조준희 집사는 신실한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천주교 모태 신앙이다. 아버지는 신실한 천주교 신자였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미사에 참석하시는 열심 있는 신앙인이셨고 신앙 안에서 리더십도 있어서 사도회장을 맡아 봉사하기도 하셨다. 이런 아버지는 딸도 신실한 천주교 신자가 되기를 원했다.

어린 조준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열심히 성당 생활을 했다. 다행히 성당 생활이 좋았다. 조준희 집사에게 성당 경험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교리 교육과 신앙 훈련을 통해 신앙생활의 습관화도 신앙의 기본 개념 숙지도 가능했다. 어느덧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한 교회 생활

1981년 1월 미국으로 건너왔다. 미국에 오자마자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다. 뉴욕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프라미스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그 후 남가주로 이주하면서 나성서부교회, 그리고 벨리에 정착하면서 만남의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12년 정도 만남의교회에 출석

하고 있다.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대부분 이민자의 삶이 그러하듯 조준희 집사도 이런 저런 일들을 했다. 그러다가 하게 된 사업이 웨딩 사업이다. 정확히 말하면 종합 이벤트 회사였다. 결혼식 준비 및 진행은 물론 모든 모임과 잔치 그리고 행사 일체를 돕는 비즈니스였다. 바쁘다! 문자 그대로 눈코 뜰새가 없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만 겨우 드렸다. 아주 가끔씩 수요 예배를 드렸고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었다. 아쉬움이 많았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너무 바빴다. 그리고 나름의 보람도 있었다. 사업도 잘되었고 직원들을 돌보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었다.

죽음의 언덕을 바라보며

조준희 집사는 한동안 일 중독자로 살았다. 과도하게 열심히 살았다. 주어진 삶의 자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쉬지 못했고 쉬 수가 없었다. 이미 시작한 사업이었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삶에 대한 의무감을 갖다보니 더욱 쉬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 왔다. 스스로 생각해도 아픔을 잘 참고 내색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걸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고관절 문제인줄 알았다. 진통제로 다스리려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초음파 진단을 하니 입과선 문제였다. 정밀진단이 필요하였지만 정밀진단을 받지 않고 참았다. 통증이 더 심각해지면 근육이완제로 다스렸다.

암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정밀진단을 받고 보니 암이었다. 의사들의 권면을 따라 MRI 검사와 조직 검사를 거쳐서 최종 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어른 주먹 크기만한 암 덩어리를 발견한 것이다. 걷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양말도 신지 못하고 겨우 Walker로 의지해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암 덩어리였던 것이다.

이젠 일을 할 수가 없었다. 2017년 7월 암이 확진된 후에 사업을

그만 두기로 맘을 먹고 건물의 리스 해제를 요청했다. 거부당했다. 2017년 8월 22일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다시 리스 해제를 요청했다. 그리고 23일 오렌만에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다.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울음이 터졌다. 좀처럼 울지 않는 조준희 집사는 그날 밤 자동차 안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며 통곡을 했다. 절망감이 밀려오고 그간 참아왔던 아픔이 통절하게 전해왔다. 통곡하는 동안 기도가 터졌다. “가게 문을 닫을 수 있게 해 주소서! 좀 쉬 수 있게 해 주소서!” 목 놓아 부르짖었다.

8월 24일 아침 식사중에 건물 관리를 하는 매니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8월 말까지 가게를 비워달라고 했다. 너무 급했다. 재고 정리 등의 시간의 필요했다. 매니저를 통해서 건물주와 협의한 것이 10월말 폐업이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업을 그만두게 된 것이 꿈만 같았다.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까? 사업장을 정리하며 재고도 정리하고, 부채도 정리하고, 그간의 관계들도 정리하며 인생도 정리하고 있었다. 죽음이 눈앞의 언덕에서 손짓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이젠 죽음을 준비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 그래서 가게 정리를 빙자해서 기증을 많이 했다. 우선 웨딩 사업에 주요 품목인 드레스들을 교회와 기관에 증여를 했다. 책들은 도서관에 기증을 했다.

남은 시간들을 헤아려 보니 별로 길 것 같지 않았다.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딸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사돈의 권면으로 시작된 일이다. 내키지 않은 일이었지만 딸의 삶에 도움이 되고, 남겨질 남편의 유익을 위해 결정한 일이다.

죽음의 언덕을 바라보며 기도가 많아지고 예배 참석 횟수가 많아졌다. 그렇다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는다. 이상하리만치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래서 종종 드리는 기도가 있다. “주님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때 저를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주님!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은 5분이면 족했던 기도인데 30분을 훌쩍 넘는 시간을 기도로 채운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



조준희 집사

망도 기도에 담겼다.

삶의 끝자락에 다시 만지는 웨딩드레스

조준희 집사는 요즘 다시 웨딩드레스를 만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 질리도록 만지고 다듬었던 웨딩드레스다. 그러나 지금은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쁘게 드레스를 만진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현재 출석하며 섬기고 있는 만남의교회(이정현 목사)에 헌물했던 드레스가 사역의 도구가 되었다. 웨딩 미션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담임목사의 지도로 조준희 집사 등의 사역 팀에서 여러 이유로 결혼식을 갖지 못한 부부들에게 무료 결혼식을 배설하려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는 교회의 비전을 실행하는 것이다. 조준희 집사가 헌물한 드레스와 그의 사업 경험이 주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비전과 기도의 제목 “하나님과 놀고 싶어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기자가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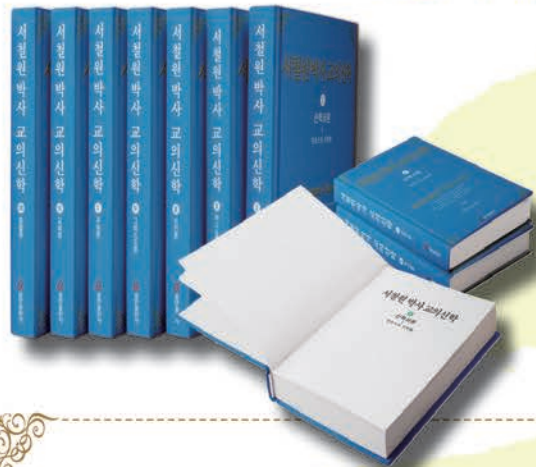
전과 기도 제목을 물었다. 암을 이겨가는 환자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생글생글 웃으며 인터뷰를 하던 조준희 집사는 심장을 담은 기도 제목들을 토해냈다. 먼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아울러 남은 날들을 살아갈 길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다.

맞물려 이어지는 기도가 현재 맡은 웨딩 미션을 위한 기도다.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놀고 싶어요!”라고 기도한다. 조 집사는 평생 바쁘게 살았다. 바쁜 삶을 핑계로 예배도 소홀했다. 자연히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나 죽음의 언덕을 바라보고 나니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시간들이 아쉽기 그지없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놀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근사한 기도와 소망이다. 생글생글 미소를 지으며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데 빨리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남긴 말이 귀가에 맴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신앙인의 고백이라 더욱 강한 울림을 남긴다.

강태광 편집위원

서철원 박사 교의신학 전 7권 완간!

전통적 개혁신학 입장에서 체계화한 교의신학의 결정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조직신학 책의 완성판

서철원 교수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B.A), 동 대학원 (M.A), 총신대 신학대학원,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대학원 (Th.M),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Dr. Theol)를 졸업하였다.

자유대학교 신학박사 학위논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중보직」(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은 20세기 100대 신학저술 모음인 Theologicum에 수록되었다.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귀국하여 개혁신학연구원 교수, 총신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부총장 역임), 한영신학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하였다.

저서로 『교리사』, 『복음과 율법의 관계』(한글 및 일어번역판), 『성령신학』, 『하나님의 구속경륜』, 『신앙과 학문』, 『복음적 설교』, 『하나님의 나라』, 『문화명령』, 『종교다원주의』, 『창조신학』, 『기독교문화관』을 출판하였다. 『언약사상에 대한 새로운 사상』(A New Thought on the Covenant Idea, contributed to the International Reformed Theological Journal of the Netherlands) 외 다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서철원 교수

I. 신학서론_ 믿음으로 신학함 304면 / 22,000원

II. 하나님론_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사역 392면 / 26,000원

III. 인간론_ 인간, 하나님의 형상 416면 / 29,000원

IV. 그리스도론_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의 구원사역 296면 / 22,000원

V. 구원론_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됨 264면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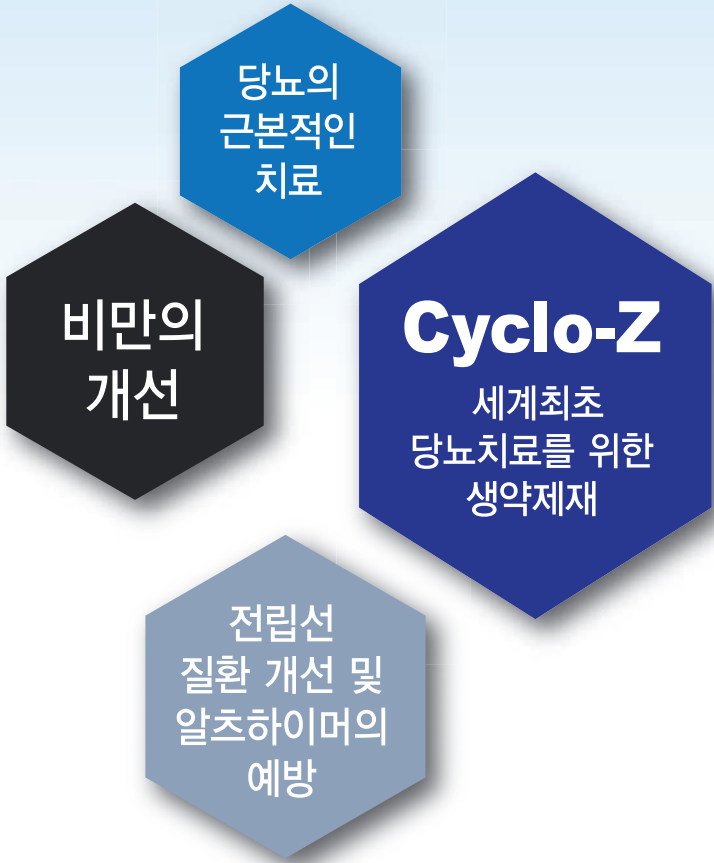
VI. 교회론_ 교회, 하나님의 집 176면 / 15,000원

VII. 종말론_ 창조경륜의 궁극적 성취 280면 / 20,000원

1세트(전7권) 154,000원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인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37% 미세혈관 합병증	21% 당뇨병 관련사망	14% 심장마비	12% 뇌졸중
------------------------	-----------------	-----------------	-------------	------------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